

5월 29일 오후야외예배

# '전교인 교구별 야외예배' 모임

## 1교구 야외모임



▲1교구 예배모습.

1교구 교구장=이상호장로.

장소 : 교회 정원. 교회정원에서 박창일권사의 사회, 이순희권사님의 기도, 이상호장로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이연식권사님의 게임을 통해 단합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2교구 야외모임



▲2교구 야외예배를 위한 준비.

2교구 교구장=김경자장로. 장소 : 덕동골산장.



성경숨은그림찾기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창 44장 33절) (숨은그림 : 용수철, 쾌속정, 벌레먹은사과, 종이비행기)

덕동골산장에서 35명이 참석하여 스테반숙에서 예배 순서를 맡으시고, 교구장인 김경자장로님의 말씀으로 1부 예배를 마치고 윤희주집사님이 2부 순서를 상품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주셔서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 3교구 야외모임



▲3교구 성찬을 앞에 두고 식사하는 모습.

3교구 교구장=김장복권사.

장소 : 응평 큰다리. 새벽기도 후 큰 다리 밑에 차려진 천막에서 김장복권사님의 사회, 백영관장로님의 기도, 심재영장로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풍선을 사용한 간단한 게임으로 재미있는 시간과 준비한 바비큐로 음식을 나누었다. 주위에 다녀간 사람들의 오물까지 자연보호 차원에서 말끔히 청소하고 소각물은 가져오니 마음도 가벼웠다.

## 백운교회 소식

### ▶중간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

지난 6월 2일(목) 금년도 중간 당회



를 위한 기획위원회를 속초 한화콘도에서 1박2일로 모임을 가졌다.

### ▶충북연회 어린이중찬단 우수상

지난 5월 28일(토) 충북연회 어린이



중찬단대회가 충주 동부교회에서 있었으며 이 대회에서 본 교회 초등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 ▶교회 현관공사 완공

지난 5월 18일(목)부터 시작된 현관공사가 21일 드디어 완공을 보았다. 수고하신 분들과 봉헌하신 분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교회학교 모범상 신현재어린이

충북연회교회학교 어린이모범상을 아동부 신현재 어린이가 수상했다.

❖입주예배❖ 지난 5월 25일 광상례성도님 입주예배. 6월 2일 유선자성도님 입주예배.

### 5월호 정답자 발표

추첨결과 ▶장규현(원서)▶유인희(새마을)▶이수길(응평)으로 결정되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발행인 : 신상균 목사  
총괄제작 : 백운교회문화부장  
제작실무 : 백운교회 간행팀  
전화 : 043-652-9191  
발행일 : 매월 첫 주일  
Email: vit2be@naver.com  
☞이름 이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백운교회 안내 / 백운감리교회는 1904년에 창립된 112년 역사의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2016년 "듣고!, 믿고!, 따르고!"

## 마음의 겨울



담임목사 신상균

“아아 잊으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매년 6월이 되면 아이들은 6·25 노래를 불렀다. 글짓기와 포스터 그리기, 그리고 웅변을 했다. 그렇게 우리의 머릿속에는 6·25가 기억되어졌다. 자신의 사상과 이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공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맞서 싸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던 민중들.

별써 6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공산주의라는 이름 대신에 자신의 출신성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칼과 총 대신에 법률과 내규로 자신의 성을 쌓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충성

# 백운향

2016/ 6

Since 1904 "꿈을 이루는 교회" 390-883/충북제천시백운면 천등박달로5안길 8 Home Page : www.vit2be.com 담임목사 신상균

[제27호] 2016년 6월 5일 발행 [월간] / 창간 2014. 4. 6

된 삶을 살다가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는 민중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 더 많이 확장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 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전 12:7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 “육월, YOU월”

뭘 기억하란 말인가?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라는 말이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란 말이다.

그렇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역사의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육을 얻어 먹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닐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순국 선열들을 떠올린다. 자신에게는 어떤 부와 명예도 없었지만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렸던 분들, 그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행복한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하겠다.

대한민국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공산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당을 짓고, 자신만의 권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백운 사람을 일컬어 ‘늘 넉넉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그 넉넉함이 가득한 6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넉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아니라 넉넉하기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백운 사람들이 되어, 나의 육을 위한 육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YOU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 6월은 “보훈의 달”/제61회 현충일



###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나라사랑으로 보답합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것. 바로 호국에 있습니다.